

‘스포츠 도시’ 해답을 보여준 ‘하늘빛 대구’

(대구FC 상징색)

지하철역엔 대구FC 슬로건·엠블럼
경기장 주변은 축구 소재 테마거리
스포츠 통한 진정한 도시재생 기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들이 반기는 장소가 있다. 바로 지하철역이다. 그곳에선 ‘한국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차범근의 30여 년 전 자취를 느낄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연고 클럽의 역대 최고 선수를 선정해 현역 시절 모습을 역기둥에 장식했는데, 차범근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축구 영웅을 모델로 선택하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을 법한데,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축구만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을 해본다.

스포츠를 통해 도시를 재생한 케이스로 많이 언급되는 곳이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 셰필드다. 1970년대부터 급격한 쇠퇴기를 맞은 그곳은 199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오랫동안 굳어진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 ‘스포츠 도시’로 탈바꿈했다. 한 때 일자리가 사라지고, 높은 실업률과 투자 부진의 악순환이 이어졌지만,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젊은 도시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스포츠는 훌륭한 문화 콘텐츠다. 그 파급력은 그 어떤 문화 영역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활용이다. 스포츠구단을 연고로 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 그래서 강조되는 게 지자체와 구단의 협업이다.

스포츠 시설물은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스포츠는 훌륭한 문화 콘텐츠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만나면 그 위력은 몇 배로 커진다. 대구FC와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사업에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대구FC는 구단 이미지를 도시 곳곳의 문화 콘텐츠로 형상화하기 위해 애쓰며 대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구 | 뉴스스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거기에 조건이 있다.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빛이 난다. 대구FC와 대구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은 건 이런 인식의 공유가 밑바탕에 깔렸을 것이다. 축구선진국인 유럽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통합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올해 홈 경기장을 DGB대구은행파크로 옮긴 대구FC는 구단 이미지를 도시 곳곳의 문화 콘텐츠로 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구역과 북구청역은 이미 대구FC로 가득 채워졌다. 축구단 팀컬러인 하늘색을 배경으로 ‘OUR CITY’, ‘OUR TEAM’, ‘WE

ARE DAEGU’라는 슬로건과 엠블럼이 자리했다. 조현우를 비롯해 세징야, 에드가, 정승원, 김대원 등 스타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고, 기둥과 천장에는 ‘DGB대구은행파크가는 길’이라는 사인물이 붙었다.

경기장 주변은 테마거리로 조성된다. 북구청네거리~삼성창조캠퍼스까지 910m 구간과 북구청역~DGB대구은행파크까지 680m 구간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가로등과 벤치 등 공공시설물과 축구를 소재로 한 조형물을 설치해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이런 노력은 결국 선수환으로 이어진다.

구단의 상징색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의 정신적인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테마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축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한번쯤 경기장에 가고픈 마음이 생길 것이다. 억지로 끌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지역구단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래야 오래가고 충성 팬이 된다.

대구의 도전이 반드시 성공했으면 한다. 이는 K리그 전체에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도시재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의 협업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ng2@donga.com

(오늘) 경남-대구 ‘16강 충돌’ FA컵 제패 의지 활활

K리그1 도·시민구단 경남FC와 대구FC는 지난 시즌을 뜨겁게 달궜다. 경남은 정규리그를 2위로, 대구는 FA컵 왕좌에 등극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했다.

같은 출발선에 선 두 팀의 겨울 행보는 달랐다. 경남은 ‘폭풍 영입’에 나섰다. 큰 폭의 리빌딩 과정에서 유럽 빅 리그를 거친 조던 머치(잉글랜드)와 루크 카스타이노스(네덜란드) 등 특급 자원이 합류했다. 반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우승 타이틀을 얻은 대구는 기존 전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조직력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

뚜껑이 열린 올 시즌 흐름은 극과 극이다. 대구는 선전을 거듭하지만 경남은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K리그1에서 11경기씩 마친 가운데 대구(승점 19)는 4위, 경남(승점 9)은 10위에 그쳤다.

전혀 다른 상황의 두 팀이 무대를 달리해 충돌한다. 1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는 ‘2019 KEB하나은행 FA컵’ 16강이다. 정규리그 1~3위를 마크한 울산 현대, 전북 현대, FC서울이 일찌감치 짐을 꾸려 수월한 여정을 앞둔 두 팀은 FA컵 제패 의지가 강하다.

대구의 분위기는 정점을 찍었다. 주말 서울 원정을 1-2 패배로 마쳤으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세징야의 부상 복귀도 반갑다. 최근 리그 7경기 무승(3무4패)으로 부진한 경남도 총력전을 선언했다. 믿을 구석은 있다. 19승5무8패의 상대전적이다. 올 시즌 첫 대결(3월30일)도 경남이 2-1로 이겼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신임감독에 선임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유상철(48) 전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았다.

인천은 14일 “유상철 감독을 팀의 새 사령탑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인천은 지난달 14일 울산 현대와의 K리그1 7라운드에서 0-3으로 패한 뒤 윤 안데르센 감독을 경질했다. 지난해 인천에 부임한 안데르센 감독은 개막 후 2경기에서 1승1무를 거뒀지만 이후 5연패를 당했다. 인천은 안데르센 감독에게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인천은 이후 임종용 수석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기고 선수단을 운영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임 대행은 프로팀 감독



유상철

독에게 필수인 P급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 인천은 새 사령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었다. 인천은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를 후보군으로 삼아 유 감독을 최종 선택했다. 유 감독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전 시티즌을 이끈 경험이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대를 지휘한 그는 지난해 전남에서 사령탑을 맡기도 했다.

유 감독은 15일 선수단과 상견례를 갖고, 팀 훈련을 지휘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영국 가디언 “손흥민, EPL 최고의 선수 5인”

스털링·판 다이크·실바 등 포함

‘두 차례 대표팀 의무를 충실히 마치고도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축구 담당 기자의 평가다. 가디언의 폴 도일 기자는 14일(한국 시간) 2018~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전체를 돌아보며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5명의 선수를 선정했다. 라힘 스텔링, 베르나르도 실바(이상 맨체스터 시티), 버질 판 다이크, 앤드류 로버트슨(이상 리버풀)과 함께 손흥민(토트넘)을 포함시켰다.

폴 도일 기자는 “손흥민은 리그가 펼쳐지는 도중 아시아계임에 이어 아시아인까지 한국 대표팀을 위해 2번의 장기 여행을 다녀왔다. 생소하게 벤치에서 출발하는 경기가 많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결국 폴로 주



손흥민

전 자리를 되찾았다. 리그에서 많은 골로 팀에 공헌했다”고 극찬했다. 도일 기자는 “잉글랜드 국적의 어떤 선수도 월드컵이 열린 직후 진행된 리그였다는 것에 불평하지 못할 정도로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2018~2019 EPL에서 31경기에 출전해 12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리그 4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리그 후반부에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자주 결정한 자리를 충실히 커버했다. 리그뿐 아니라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팀을 결승에 올려놓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디지털 산업 시대에 주목받는 자격증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차세대 취업 경쟁력에 딱!

인터넷·모바일·IT 할 것 없이 각종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산업이 활발한 현 상황에서 주목받는 기술이 있다. 바로 전자자원관리(ERP) 기술이다. 실제로 내로라하는 디지털 기업들은 SW 기업들이 만들어 낸 시스템을 차용하기 위해 업무상 협업을 마다하지 않는다.

ERP는 전자적 자원관리의 약자로 기업 경영활동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다. ERP는 생산·판매·인사·회계·자금·원가·고정자산 등 전 부문에 걸쳐있는 경영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재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이 커질수록 시스템 통일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기업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 ‘전자적 자원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국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던 ‘ERP 정보관리사’ 자격시험 또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9년 회계·인사·생산·물류 등 각 종목별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정식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에듀윌에서는 일찍이 ‘ERP 정보관리사’ 자격 관련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1급 과정, 2급 과정, 더블 합격반, 세무회계 평생 프리 패스 등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은 자신이 원하는 급수와 자격증 종류 및 개수에 맞춰 수강이 가능하다.

ERP 정보관리사를 시작하는 초보 수강생에게는 ‘사이다 특강’도 제공한다. 수강생의 질문이 많았던 내용을 전문 교수진이 직접 선정해 이로부터 실습까지 단 4강으로 마무리하는 특강이다.

■ 스도쿠문제

		8	4	2				
	8		6	1				
		6	7	5	4			
9	4		5			1		
		5	6	7	4			
7			4			5	8	
3	4	8		9				
		9	1		4			
2	4	5						

		3		6			1	
4			5		9			8
		5		3		2		
	4			2			8	
2		9	6		5	1		3
	1			4			5	
		6		1		4		
1			4		8			7
	9			5			2	

■ 스도쿠정답

7	9	3	8	6	4	8	2	1
5	4	8	3	1	2	6	7	9
2	1	6	9	8	7	4	5	3
8	5	5	2	1	4	8	3	7
3	4	6	2	2	9	5	1	8
1	1	7	8	6	8	5	9	6
8	4	1	7	9	6	1	3	8
9	8	7	5	9	6	9	1	4
6	7	2	4	3	8	1	5	9
8	9	6	7	5	1	2	4	3
4	1	9	2	9	8	7	2	6